



# 靑於藍 국어

2012년 경북교육행정직

청어람(靑於藍)국어의 저자 송병렬 선생과의 만남은 특별합니다.



## 송병렬 국어단과

합격을 위한 필수강좌! 국어의 벽(壁)을 넘는 강의!!

누리마루 비문학특강

월,화,수 08:00~08:50

新유형분석125제

월,수, 15:30~18:00

### 1. 다음 중, 둘 다 표준어인 것은?

- ① 무 - 무우                      ② 뚫 - 돌                      ③ 사글세 - 삭월세
- ④ 노을 - 놀                      ⑤ 강남콩 - 강낭콩

풀이 ④

④ 준말 '놀'과 본말 '노을'이 다 같이 널리 쓰이므로 둘 다 표준어로 삼는다. (관련조항 : 표준어 규정 2장 3절 16항)

- ① 본말인 '무우'보다 준말인 '무'가 더 널리 쓰이므로 '무'만 표준어로 삼는다.
- ② '돌'의 의미로 '뚫'을 쓰는 경우가 있으나 '돌'만 표준어로 삼는다.
- ③ '삭월세'에서 온 말이나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사글세'로 널리 쓰이므로, '사글세'만 표준어로 삼는다. '사글세'의 의미로 '삭월세'가 쓰이는 경우가 있으나 '사글세'만 표준어로 삼는다.
- ⑤ '강낭콩'에 대해서 어원을 밝힌 '강남콩'을 쓰는 경우가 있으나 이미 어원에서 멀어진 것으로 보고 '강남콩'만 표준어로 삼는다.

### 2. 속담의 뜻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 ①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 앞뒤 가리지 못하고 미련하게 행동함.
- ② 빛 좋은 개살구 - 걸만 그럴 듯하고 실속이 없음.
- ③ 죽은 자식 나이 세기 - 이왕 잘못된 일을 자꾸 생각해도 소용없다는 말.
- ④ 우선 먹기에는 꽃감이 달다. - 그다지 좋지는 않으나 당장은 좋으니 취할 만함.
- ⑤ 제 눈에 물 대기 - 자기 이익만 생각함.

풀이 ①

①은 '남의 재앙을 점점 더 커지도록 만들거나 성난 사람을 더욱 성나게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불난 데 풀무질한다.'와 의미가 같다.

### 3. 맞춤법에 어긋난 단어는?

- ① 머리말                      ② 뒷꿈치                      ③ 설거지                      ④ 댕이다                      ⑤ 짜깁기

풀이 ②

'뒤꿈치'의 의미로 '뒹꿈치, 뒤꿈치'를 쓰는 경우가 있으나 '뒤꿈치'만 표준어로 삼는다. 이는 된소리 앞에서 'ㅅ'을 천가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따른 것이다.

### 4. 어법에 어긋난 이유가 다른 하나는?

- ①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응하면서 산다.
- ② 방학 기간 동안 축구를 실컷 했다.
- ③ 요즘 같은 때에는 공기를 자주 환기시켜야 감기에 안 걸리는 거야.
- ④ 나는 오늘 저녁 6시에 역전 앞에서 그녀를 만나기로 했다.
- ⑤ 나이가 어린 연소자는 출입을 통제한다.

풀이 ①

①은 필수부사어가 생략된 문장이다.

→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에) 순응하면서 산다.

- ②,③,④,⑤는 의미의 중복을 가져오는 잉여적 표현이다.
- ② 방학 **기간 동안** 축구를 실컷 했다.→ 방학 **동안** 축구를 실컷 했다
- ③ 요즘 같은 때에는 **공기를 자주 환기시켜야** 감기에 안 걸리는 거야.  
→ 요즘 같은 때에는 자주 환기해야 감기에 안 걸리는 거야.
- ④ 나는 오늘 저녁 6시에 **역전 앞**에서 그녀를 만나기로 했다.  
→ 나는 오늘 저녁 6시에 역전에서 그녀를 만나기로 했다.
- ⑤ 나이가 **어린 연소자**는 출입을 통제한다.  
→나이가 연소자는 출입을 통제한다.

**5. 발음이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넓다 [넙따]    ② 늙고 [늘꼬]    ③ 묻히다 [무치다]    ④ 값울 [갑쓸]    ⑤ 신라 [실라]

풀이 ①

- '래'의 대표음은 'ㄹ'이므로 [넙따]로 발음되어야 한다.
- ② '러'의 대표음은 'ㄹ'이나, 뒤에 'ㄱ'이 오면 'ㄹ'이 대표음이다.
- ③은 자음축약한 뒤 구개음화가 일어난 발음이다.
- ④ 묵음되던 'ㅅ'은 된소리로 연음하여 발음한다.
- ⑤ 자음동화 유음화된 발음이다.

**6. 다음 글의 밑줄 친 ㉠ : ㉡의 의미 관계와 같은 것은?**

나무에 아주 ㉠친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달이 있고, 바람이 있고, 새가 있다. 달은 때를 어기지 아니하고 찾고, 고독한 여름밤을 같이 지내고 가는, 의리 있고 다정한 친구다.

- ① 계승(繼承) : 단절(斷絶)                    ② 숙환(宿患) : 지병(持病)
- ③ 일치(一致) : 부합(符合)                    ④ 예술(藝術) : 문학(文學)
- ⑤ 가명(假名) : 실명(實名)

풀이 ④

의미의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①,⑤는 반의관계 ②,③은 동의관계 ④는 상하관계이다.  
㉠'친구'가 의미상 상의어, ㉡의 '달'을 포함하며 '바람', '새' 등은 하위어이므로 답은 ④번이다.

**7. 다음 <보기>의 맞춤법 규정을 참고할 때,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보기>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 ① 부장 겸 차장 ② 한잎 두잎 ③ 이말 저말 ④ 하루 내지 이틀 ⑤ 이사장및 이사들

풀이 ⑤

'및', '겸', '내지'와 '과'는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해 주는 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때 '및, 겸, 내지'는 부사이므로 앞뒤에 오는 말과 띄어 써야 한다.

**8.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어울리는 한자성어(漢字成語)는?**

더구나 이날 이때에 이 팔십 전이라는 돈이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다. 킬킬한 목에 모주 한 잔도 적실 수 있거니와, 그보다도 앓는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도 사다 줄 수 있음이다. 그의 아내가 기침으

로 쿨룩거리기는 벌써 포가 넘었다. 조팝도 굽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니, 물론 약 한 첩 써 본 일이 없다.

- ① 삼순구식(三旬九食)
- ② 무위도식(無爲徒食)
- ③ 비몽사몽(非夢似夢)
- ④ 역지사지(易地思之)
- ⑤ 감탄고토(甘呑苦吐)

**풀이** ①

밑줄 친 부분은 몹시 가난함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삼십 일 동안 아홉 끼니밖에 먹지 못한다는 뜻으로, 몹시 가난함을 이르는 말'인 ① '삼순구식(三旬九食)이 적절하다.

- ② 무위도식(無爲徒食) : 하는 일 없이 놀고먹음.
- ③ 비몽사몽(非夢似夢) : 완전히 잠이 들지도 잠에서 깨어나지도 않은 어렴풋한 상태
- ④ 역지사지(易地思之) :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
- ⑤ 감탄고토(甘呑苦吐) :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비위에 따라서 사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을 이르는 말.

**9. 다음 문장의 짜임새에 대한 풀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그는 마음이 넓다. - 인용절을 안은 문장
- ② 나는 학생이 아니다. - 서술절을 안은 문장
- ③ 눈이 소리도 없이 내린다. - 부사절을 안은 문장
- ④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 홑문장
- ⑤ 비가 와서, 땅이 미끄럽다. -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풀이** ③

- ① 그는 마음이 넓다(서술절) - 서술절을 안은 문장
- ② 나는(주어) 학생이(보어) 아니다(서술어). - 홑문
- ④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 ⑤ 비가 와서(종속절), 땅이 미끄럽다(주절). -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10. 단어의 형성 방법이 다른 것은?**

- ① 늦더위                      ② 손바닥                      ③ 돌다리                      ④ 부슬비                      ⑤ 지우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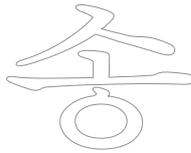
**풀이** ⑤

⑤를 답으로 본 것은 '지우다+개(명사화접미사)> 지우개'로 보아 파생명사, 즉 파생어로 보고, 나머지를 합성어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은 ①도 파생어로 등재하고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다.

**(11~12)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①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나) 내 죽으면 한 개 바위가 되리라  
 아예 애련(哀憐)에 물들지 않고  
 희로(喜怒)에 움직이지 않고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억년(億年) 비정(非情)의 함묵(緘默)에  
 안으로 안으로만 채찍질하여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흐르는 구름  
 머언 원뢰(遠雷)  
 꿈 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뜨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11. (가)시를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이다. 작품 자체의 내재적 의미만을 주목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화자는 하늘을 우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고 싶었다고 하지만, 일제의 탄압이 심했던 당시에는 그렇게 사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야.
- ② 이 시는 우리 같은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작품이야. 우리가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나갈 때, 지금과 같은 젊고 순수한 마음을 결코 잃지 말라는 거야.
- ③ ‘나한테 주어진 길’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작가는 자신의 인생길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 ④ 이 시를 쓴 사람은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직업이 그런 쪽일 거야.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말이야.
- ⑤ 참 멋있다. 별은 천상 세계에 속하고, 바람은 지상 세계에 있는 것인데, 끝에 가서 별이 바람에 스치는 것을 보니 이야말로 두 세계가 만나는 경지 아니겠어?

**풀이**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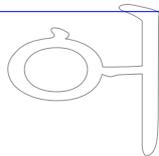
‘내재적 관점’이란 작품의 내적 구조와 요소를 살펴 감상에 적용하는 것을 내재적 관점이라 하며, 다른 말로 절대주의적 관점, 구조주의적 관점이라고도 한다. 즉, 시어, 이미지, 어조, 비유와 상징, 제재 등등으로 감상하는 것으로 철저히 외적인 요소(현실, 작가, 독자 등)를 배제하고, 작품을 감상하여 작품의 구조만을 살피는 방법이기때 구조론적 관점이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별’의 상징적 의미에 초점을 맞춘 ⑤가 정답이다.

①은 반영론적 관점, ②는 효용론적 관점, ③,④는 표현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작품연구 **현대시 2편**

**[가] 율동주의 <서시>**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율격 : 내재율
- 성격 : 성찰적. 고백적. 의지적, 참여적, 반성적
- 어조 : 엄숙하고 정결한 분위기, 절대 순결을 윤리적 지표로 하는 청년의 양심 고백적 목소리, 고백적 어조와 의지적 어조
- 심상 : 별과 바람의 시각적 심상
- 구성 : 시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 (과거 - 미래 - 현재)
- 제재 : 별(이상의 세계와 순수한 양심)
- 주제 : 부끄러움이 없는 순결한 삶에의 소망, 부끄러움 없는 삶에 대한 간절한 소망



- 특징 : ① 대조적 심상의 부각(별과 바람) ② 서술과 묘사에 의한 표현  
③ 자연적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함
- 표현법 : 자기 응시의 독백적 형식, 죽음과 삶의 대립적 구조, 고통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함
- 출전 :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1948)

**[나] 유치진의 <바위>**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의지적, 남성적, 상징적
- 체재 : 바위
- 주제 : 초극적인 삶의 추구
- 특징 : ① 대상을 의인화하여 표현함. ② 단호하고 결의에 찬 남성적 어조임,  
③ 생경한 한자 관념어를 사용하고 있음

송

**12. 밑줄 친 ㉠의 시적 의미가 형상화된 시행을 (나)시에서 찾는다면?**

- ① 아예 애련(哀憐)에 물들지 않고                      ② 바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③ 안으로 안으로만 채찍질하여                      ④ 흐르는 구름 / 머언 원뢰(遠雷)  
⑤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풀이 ③**

밑줄 친 ㉠은 순결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자 했던 시적 화자의 의지와 고뇌와 연인이 드러나 있는 부분으로 그의 괴로운 자신이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서 생겨난다. ③은 내적 성찰과 자기단련의 과정과 통한다.

**13. 다음 글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을 잘못 말한 것은?**

(가)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나) 깃발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먼 해원(海原)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국

- ① (가)의 '달빛'은 외로움과 상통한다.  
② (가)보다는 (나)의 시구가 비유적이다.  
③ (나)에는 역설적 표현과 직유(直喩)가 드러나 있다.  
④ (가)는 시각적 심상으로 외로움을 구체화하고 있다.  
⑤ (나)에는 청각과 시각의 이미지가 동시에 나타난 공감각적 표현이 있다.

**풀이 ③**

(가)는 신경림의 <가난한 사랑의 노래>, (나)는 유치환의 <깃발>이다.  
(나)에는 역설적 표현이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직유(直喩)가 아닌 은유(隱喩)가 드러나 있다.  
• 역설법 : 깃발은 소리 없는 아우성.  
• 은유법 : 깃발은 소리 없는 아우성. 먼 해원(海原),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어

14. 다음 시조가 예찬(禮讚)하고 있는 대상은?

빙자옥질(氷姿玉質)이여 눈 속에 네로구나.  
 그마니 향기(香氣) 노아 황혼월(黃昏月)을 기약하니  
 아마도 아치고절(雅致高節)은 너뿐인가 흐노라.

- ① 학    ② 매화    ③ 국화    ④ 소나무    ⑤ 대나무

풀이 ②

제시문은 안민영의 '영매가'로 매화를 예찬하는 노래이다.

- ① 학: 현상호의 (玄裳縞衣)  
 ② 매화 : 빙자옥질(氷姿玉質), 아치고절 (雅致高節), 선자옥질(仙姿玉質)  
 ③ 국화 : 오상고절(傲霜孤節), 군자절(君子節)  
 ⑤ 대나무: 세한고절(歲寒孤節)

작품연구	<b>안민영의 &lt;영매가&g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 매화 예찬</li> <li>• 소재 :매화</li> <li>• 구분: 연시조, 평시조</li> <li>• 특징 ①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건네는 어조.    ② 영탄법으로 대상에 대한 심회 표출</li> <li style="padding-left: 20px;">③ 제 4수의 소재인 매화는 '풍류'의 대상.</li> <li>④ 시각,후각,촉각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li> </ul>	

(15~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까치 소리는 반갑다. 아름답게 굴린다거나 구슬프게 노래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기교 없이 가볍고 솔직하게 짓는 단 두 음절, '깍깍', 첫 '깍'은 높고 둘째 '깍'은 낮게 계속되는 단순하고 간단한 그 음정(音程)이 그저 반갑다. 나는 어려서부터 까치 소리를 좋아했다. 지금도 아침에 문을 나설 때마다 까치 소리를 들으면 그 날은 기분이 좋다.

<중략>

지금은 아침 여덟 시, 나는 정릉 안 숲 속에 자리잡고 앉아 있다. 오래간만에 까치 소리를 들었다. 나뭇잎들은 아침 햇빛을 받아 유난히 곱게 푸르다. 나뭇잎 사이사이로 파란 하늘이 차갑게 맑다. 그간 비가 많이 왔던 관계로 물소리도 제법 크게 들려온다.

나는 어느 날 이른 새벽에 여길 와 본 적이 있었다. 보건 운동을 하러 온 사람, 약물을 먹으러 온 사람들로 붐비어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와 보니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윽한 숲 속이 한없이 고요하다. 지금이 제일 고요한 시간이다. 까치들이 내 앞에 와서 짹짹 뛰어다닌다. 이른바 까치걸음이다. 귀엽다. 손으로 만져도 가만히 있을 것만 같다. 그렇게 사람이 옆에 앉아 있다는 데는 아무 관심이나 의구심도 없이 내 옆에서 짹짹 뛰어놀고 있다.

나는 일찍이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민화(民畵) 하나를 생각한다. 한 노옹(老翁)이 나무 밑에서 허연 배를 내놓고 낮잠을 자는데, 그 배 위에 까치 한 마리가 우뚝 서 있었다. 나는 신기한 그 상상화에 기쁨을 느꼈다. 민화라 어린이의 자유화(自由畵)같이 천진하고 기발한 데가 있어서 저런 재미있는 그림도 그려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저 까치들을 보고 ㉠그것은 기발한 상상이 아니요, 사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15. 위 글의 글쓴이가 밑줄 친 ㉠과 같이 말한 이유로 적절한 것은?

송병렬교수의 청어람국어교실	<a href="http://cafe.naver.com/shd1025">http://cafe.naver.com/shd1025</a>	청어람국어시리즈특강
----------------	---	------------

- ① 이치에 맞지 않는 상상이기 때문                      ② 인간과 친근한 까치의 모습 때문
- ③ 까치가 자연과 교감을 하기 때문                    ④ 까치가 인간을 두려워하였기 때문
- ⑤ 민화는 사실적 풍경만을 다루기 때문

**풀이 ②**

이 글은 까치가 지닌 생리를 살피고 그와 관련된 여러 일화를 서술함으로써 자연과 교감하는 삶의 가치를 말하고 있다. 자연의 사물에 대한 관찰을 통해 인생을 거울에 비추어 보는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은이의 주장을 두드러지게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이야기의 전개 속에 자연스럽게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어야 함을 설득한다. 인간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까치의 존재가 인생에 교훈과 함께 자연과 일체가 되는 이상적인 삶의 양태를 제시하고 있다.

<b>작품연구</b>	<b>윤오영의 &lt;까치&g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갈래 : 경수필. 교후적 수필</li> <li>• 성격 : 동양적. 고전적</li> <li>• 문체 : 생략과 비약이 많은 문체</li> <li>• 제재 : 까치</li> <li>• 주제 : 희망과 소쇄함과 거칠 것 없는 자유로운 삶의 희구(자연과 일체가 되는 공존적인 삶의 가치)</li> <li>• 출전 : &lt;방망이 깎던 노인&gt;(1977)</li> </ul>	

**16. 위 글의 글쓴이가 소망하는 삶의 모습과 관련된 작품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간밤에 우던 여흘 슬피 우러 지내어다.  
이제야 생각하니 님이 우러 보내도다.  
저 물이 거스리 흐르고저 나도 우러 네리라.
- ② 구름이 무심(無心)튼 말이 아마도 허랑(虛浪)하다.  
중천(中天)에 썬 이서 임의(任意)로 든니면서  
구티야 광명(光明)흔 날빛출 싸라가며 덩느니.
- ③ 십 년을 경영(經營)하여 초려삼간(草廬三間) 지어내니  
나 혼 간, 들 혼 간에 청풍(淸風) 혼 간 맛져두고,  
강산(江山)은 들일 디 업스니 둘러 두고 보리라.
- ④ 어저 내 일이야 그럴 줄을 모로드냐.  
이시라 헛더면 가라마는 제 구터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흐노라.
- ⑤ 춘산(春山)에 눈 노긴 바름 건듯 불고 간 디 업다.  
저근덧 비리다가 마리 우회 불리고저.  
귀 밋틱 희묵은 서리를 녹여 불가 흐노라.

**풀이 ③**

사람 없고 고요한 숲속에서 까치들이 자신의 발 밑을 강충강충 뛰어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물아일체'의 교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지은이는 그 교감을 야단스럽게 설명하기보다는 민화의 예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그리하여 자연과의 교감과 깨달음을 보여주고 있음에 착안한다.

그러므로 자연과 함께하는 '천석고황(泉石膏育)'을 노래한 송순의 '강호한정가'가 답이다.

- ① 세조반정에서 단종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원호'의 연군가다.
- ② 간신(奸臣) '신돈'의 행실을 풍자한 이존오의 풍자시다.
- ④ 황진이의 연정가다.
- ⑤ 젊고자하는 욕망을 그린 우탁의 '탄로가'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씨의 사촌이 되지 말고  
민씨의 팔촌이 되려무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 띄워라 노다 가세.

남산 밑에다 장충단을 짓고  
군악대 장단에 받들어춤만 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 띄워라 노다 가세.

아리랑 고개다 정거장 짓고  
전기차 오기만 기다린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 띄워라 노다 가세.

문전의 옥토는 어찌 되고  
쪽박의 신세가 웬 말인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 띄워라 노다 가세.

송

병

렬

1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리 민족의 삶과 한을 표현한 문학이다.
- ② 3음보 율격의 민요로 후렴구가 발달하였다.
- ③ 평이한 일상어를 사용하여 민중의 현실을 표출하고 있다.
- ④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⑤ 민요 형식을 빌려 당대 현실에 대해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풀이 ④

이 노래는 전체 9연 중 1~4연이며, 3음보격으로 되어 있는 민요이다. 위기에 처한 민족적 현실을 즉각적으로 또 정확하게 반영한 노래로 일반 생활인의 구체적 삶이 소박하고 직접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날카로운 풍자성을 드러내고 있다. 동일한 곡조의 반복 구조로 민씨 세도 정권 때부터 일제 강점하의 시기 속에서 민족적 수난으로 인한 삶의 파괴와 민중들이 느꼈던 체험과 예지를 담고 있다.

작품연구 **조선 후기 민요**

- 작자 : 미상[(공동작(公同作))]
- 구성 : 추보식(시간적 순서에 따른 전개)
- 특징 : 대구법, 제유법 사용
- 제재 : 구한말에서 일제하에 이르는 민족 현실
- 주제 : 민족 현실에 대한 비판
- 의의 : ㉠ 민중들의 정서와 역사에 대한 체험을 민요의 형식을 빌려 노래한 작품이다.  
㉡ 전통적인 민요 양식이 개화기 시가의 한 형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출전 : <조선의 민요(1948)>
- 갈래 : 서정 민요, 구비 민요
- 성격 : 현실 비판적, 풍자적

**(18~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7마당 양반선비마당-

**초랭이** : 양반요, 양반요, 얼른 나오쇼.

    곳거리장단에 맞춰 양반은 여덟 팔 자 황새걸음으로 ‘등장,춤’을 추며 등장한다. 초랭이는 연신 바쁘게 쫓아다니며 부산을 떠다. 양반과 선비가 무대 중앙에 위치하면 초랭이가 뛰어나온다.

**초랭이** : 양반요, 나온 김에 서로 인사나 하쇼.

**양반** : 여보게 선비, 우리 통성명이나 하세.

**선비** : 예, 그러시디.

**초랭이** : (양반과 선비가 서로 절을 하려고 할 때, 초랭이가 양반 머리 위에 엉덩이를 돌려 대고 선비에게 자기가 인사를한다.) 헤헤…… 니 왔니껴?

**양반** : 예끼, 이눔.

**선비** : 저놈의 초랭이가 버릇이 없구먼요.

**양반** : 암만 가르쳐도 안 되는 걸 별도리가 있다.

**선비** : 아니, 그대 가지고 이마에 대쪽 같은 걸 쓰고 양반이라카나?

**초랭이** : 지도 인사, 나도 인사, 인사하긴 마찬가지로 무슨 상관이니껴.

**양반** : 어흠, 그대 내가 양반이 아니고 또 머로? 여기에 내보다 더한 양반이 어디 있노.

    선비는 부네를 부르고 자리에 앉는다. 양반도 앉는다. 부네는 가만히 선비에게로 가 선비의 어깨를 주무른다. 선비는 부네가 주무르는 손을 어루만지며, 양반이 보란 듯이 다정스레 대한다.

**초랭이** : 양반요, 어깨 주물러 주까요?

(초랭이는 부네의 흉내를 내듯 양반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무릎으로 양반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한다.)

**양반** : 아이쿠, 이눔. 어깨 부서질따.

**초랭이** : (뒤로 나동그라진다. 다시 일어서 양반의 뒤통수를 세게 내려치려는 행동을 한다.) 양반요, 양반요, 아 양반어른요.

**양반** : 허허, 이눔이 오늘 따라 왜 이리 수답노.

**초랭이** : 세사 참, 별꼬라지 다 볼시데이. 아까요, 중놈이 부네하고 요래 요래 춤추다가 중이 부넬 차고 저짜로 갔잖니껴.

**양반** : 허허, 그 참 망측한 세상이로다.

**18. 전통가면극이 서양의 연극과 다른 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다.
- ② 공연하는 곳이 무대가 된다.
- ③ 관객이 극에 참여할 수 있다.
- ④ 작품 전체가 인과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⑤ 과장된 행동과 몸짓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풀이** ④

전통가면극은 여러 과장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과장이 독립된 옴니버스식 구성이다.

**19. 우리 전통가면극에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서, 표정이나 몸짓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표현 방법은?**

- ① 반어적 표현    ② 역설적 표현    ③ 감각적 표현    ④ 반언어적 표현    ⑤ 비언어적 표현

**풀이** ⑤

우리는 늘 말을 하고 살지만, 그 말들에 단계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한다고 말이 다 말이 아닌 것이다. 의사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말만큼 강력한 도구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언어적 표현보다 비언어적 표현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비언어적 표현이라 함은, 눈빛, 제스처, 표정, 자세 등 말이 아닌 모든 표현을 말한다. 이러한 비언어적 표현은 실제 전

달하는 언어적 표현 뒤에 있으면서 다양한 의미를 전달한다. 전통극은 이 비언어적 표현을 얼마나 파악하고 읽어내느냐가 관건이 된다. 왜냐하면 탈춤을 비롯한 전통극은 행동과 대사가 주 표현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작품연구	<b>하회별신굿탈놀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갈래 : 전통 가면극의 대본, 탈춤(민속극) 대본</li> <li>• 작가 : 미상(경북 안동 하회 마을)</li> <li>• 연대 : 조선 후기</li> <li>• 성격 : 비판적, 풍자적, 회화적, 해학적, 오락적, 유희적</li> <li>• 제재 : 서민과 양반의 생활</li> <li>• 구성 : 전체 12과장중 5과장 '양반과 선비의 제도 자랑'으로 구성됨</li> <li>• 주제 : 양반과 선비의 허위성 폭로, 양반과 과거승에 대한 비판과 서민 생활의 애환</li> <li>• 출전 : [유한상 채록본]</li> <li>• 특징 : 내용이 원초적이고, 소박하며, 언어 유희에 의한 표현, 대표적인 농촌형 탈춤임</li> </ul>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강촌영감 : 당장 오늘밤에 떠나게!  
 칠복 : 예?  
 봉구 : 뉘시꾼들이 자네를 오늘밤 당장 쫓아내지 않으면 다시는 여기에 뉘시질 오지 않겠다는 거여!  
 강촌영감 : 매정헌 사람이라고 헐지 모르제만, 오늘밤 우리덜 정을 싹둑 싹두질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네.  
 덕칠 : 팬시리 없어진 고향 짝사랑허지 말어. 고향이고 여편네고 잇어 뿌릴 건 냉큼 잇어 뿌리어야 살기가 쉬워!  
 칠복 : 봉구, 덕칠이, 나를 내쫓지 말어. 이 보게덜, 고향에서 내쫓기면 워디로 갈 것인감. 영감님! 지사정 좀 봐주시오, 잉!  
 강촌영감 : 정 안가겠다면 덕석몰이를 해서라도 내쫓을 꺼여!  
 칠복 : .....예?

20. 위 글에 등장하는 ‘칠복’의 처지를 나타낸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면종복배(面從腹背)하고 있군.      ② 호가호위(狐假虎威)하고 있군.
- ③ 함흥차사(咸興差使)의 처지로군.      ④ 사면초가(四面楚歌)에 처해 있군.
- ⑤ 권모술수(權謀術數)로 살 길을 모색하고 있군.

풀이 ④

제시문은 문순태의 <정소리>를 각색한 것이다.

기존의 마을이 댁건설로 인해 수몰된 후 강촌영감, 봉구, 덕칠이 등 수몰민들은 뉘시를 하러오는 관광객 등을 상대로 장사를 하여 생계를 이어 갔으나 도시에서 살다가 좌절하고 고향에 돌아온 칠복이 징을 치며 뉘시꾼들을 방해하므로 먹고 살기 위하여 쫓아난다는 줄거리이다.

마지막 부분에 “이 보게덜, 고향에서 내쫓기면 워디로 갈 것인감. 영감님! 지사정 좀 봐주시오, 잉!”을 통해 떠나다 갈 곳이 없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칠복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① 면종복배(面從腹背) : 겉으로는 순종(順從)하는 체하고 속으로는 딴 마음을 먹음
- ② 호가호위(狐假虎威) :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威勢)를 빌려 호기를 부린다는 뜻으로, 남의 세력(勢力)을 빌어 위세(威勢)를 부림
- ③ 함흥차사(咸興差使) : 심부름꾼이 가서 소식(消息)이 없거나, 또는 회답(回答)이 더딜 때의 비유(比喻·譬喩)하거나 한번 간 사람이 돌아오지 않거나 소식(消息)이 없음
- ④ 사면초가(四面楚歌) : 사방(四方)에서 들리는 초(楚)나라의 노래라는 뜻으로, 적에게 둘러싸인 상태(狀態)나 누구의 도

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孤立) 상태(狀態)에 빠짐을 이르는 말

⑤ 권모술수(權謀術數) : 목적(目的) 달성(達成)을 위(爲)해서는 인정(人情)이나 도덕(道德)을 가리지 않고 권세(權勢)와 모략(謀略) 중상(中傷) 등(等) 갖은 방법(方法)과 수단(手段)을 쓰는 술책(術策)

작품연구 **문순태의 <징소리>**

- 갈래 : 단편 소설, 연작 소설
- 배경 : 시간(1970년대), 공간(전남 장성호 수몰 마을)
- 경향 : 사회 고발적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표현 : 주로 서술에 의지함. 인물 묘사는 간접적인 방법이 위주
- 의의 :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농촌의 붕괴와 도시 빈민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사회소설로서 우리의 전통적 정서인 한(恨)이 현대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용되어 나타나는가를 진지하게 모색한 작품
- 주제 :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촌과 농촌 출신 도시 빈민들의 고달픈 삶
- 출전 : <창작과 비평>(1978)

송  
병  
렬  
국  
어